

「야키니쿠 드래곤」에 그려진 냉전시대의 재일조선인*

김계자**
kjstudyn@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냉전시대에 사산(四散)하는 재일조선인 |
| 2. '조선인 취락 N지구'라는 공간 | 5. 맺음말 |
| 3. 텍스트의 시간과 등장인물의 극적 구성 | |

主題語: 정의신(Chong Wishing), 조선인취락(Korean village), 냉전시대(Cold War Era), 귀국사업(The Repatriation Project), 분단과 이산(division and separation)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정의신(鄭義信, 1957~)이 2008년에 발표한 희곡 「야키니쿠 드래곤(焼肉ドラゴン)」을 고찰하여 냉전시대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¹⁾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남북과 일본에 폭넓게 이어지고 있는 재일사회의 이산(離散)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의신은 일본 효고(兵庫) 현 히메지(姫路) 시의 조선인 취락(聚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본에서 조선인이 집단으로 거주한 취락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전후까지 이어진 곳도 있고, 전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곳도 있다. 정의신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자의 취락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8684)

** 한신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 조교수

1) 「야키니쿠 드래곤」에는 다양한 국적과 형태로 재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작자 정의신이 희곡의 서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성립 직후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鄭義信(2013)『鄭義信戯曲集 たえば野に咲く花のように(焼肉ドラゴン／パーマ屋スマイル)リトルモア, p.169)한다고 주석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 본고에서도 ‘조선’이나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의신이 언급한 ‘조선’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포괄하는 민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문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정의신은 소설 『야키니쿠 드래곤(焼肉ドラゴン)』(角川文庫, 2018)에서는 ‘재일코리아’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한일협정」 논의가 화제가 되었을 때는 ‘재일한국인’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용문의 경우는 원문의 표기를 따른다.

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다, 이후에 후자의 취락으로 이사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활하였다. 그가 살던 취락은 패전 직후의 혼란기에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고, 여기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함께 100가구 이상이 모여 살았다고 회상한다.²⁾ 「야키니쿠 드래곤」의 공간적 배경은 정의신이 살았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조선인 취락에서 생활한 체험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야키니쿠 드래곤」은 작품 발표와 동시에 극작품에 수여되는 일본의 대표적인 상을 석권하며 화제를 모았다. 2008년에 ‘요미우리연극대상(読売演劇大賞)’, ‘아사히무대예술상(朝日舞台芸術賞)’, ‘기노쿠니야연극상(紀伊國屋演劇賞)’을 받았고, 이듬해인 2009년에 ‘쓰루야난보쿠희곡상(鶴屋南北戯曲賞)’을 수상하였다. 또, 일본의 신국립극장(新國立劇場)과 한국의 예술의전당의 협업으로 정의신과 한국의 연출가 양정웅(梁正雄)이 공동으로 제작한 연극이 2008년에 한일 양국에서 초연되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³⁾

「야키니쿠 드래곤」은 연극뿐만 아니라 동명의 영화⁴⁾와 소설⁵⁾로도 선을 보였다. 2008년에 연극으로 먼저 소개되었고, 2018년에 영화와 소설이 거의 동시기에 나왔다. 연극은 한일 양국의 제작자와 배우가 협업으로 작품을 완성하여 양국에서 상연된 점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영화도 연극처럼 협업으로 제작한 것은 동일한데, 연극에서는 무대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었던 비행장 활주로 옆으로 위치한 조선인 취락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거나, 등장인물 도키오가 일본인 학교에서 이지메 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보임으로써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은 일제강점기 이래 현재까지 재일조선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동시대의 문제를 도키오의 내레이션을 지문 처리하여 상제하고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일본의 젊은 세대나 재일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연극, 영화, 소설 각각의 장르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른데, 본 논문에서는 처음에 선보인 연극의 극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영화나 소설을 보조선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공간적 배경 설정이

2) 다카쓰키 야스시 저·한정선 역(2020) 「[인터뷰] 정의신-돌담길 조선인 취락에 대한 기억」 『13인의 재일한인 이야기』보고서, p.275

3) 「야키니쿠 드래곤」이 연출가, 배우, 제작자 모두 한일 양국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우수진은 연극인의 교류를 통한 탈경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우수진(2008.9)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재일조선인 연극과 야끼니꾸 드래곤-혼종적 리얼리티와 낭만적 심미화」 『공연과 리뷰』62, pp.111-114

4) 영화 「야키니쿠 드래곤」은 정의신이 처음으로 감독한 작품으로, 2018년 5월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소개되었다. 일반 개봉은 일본에서는 2018년 6월에, 한국에서는 「용길이네 곱창집」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3월에 개봉되었다.

5) 鄭義信(2018) 『焼肉ドラゴン』角川文庫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영화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도중에 지문을 통해 제시는 되지만, 이는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레이션이 중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곡의 시작 부분에서 공간 배경으로 제시해놓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또, 이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요소가 극적으로 조합되고 구성된 점도 애초에 회곡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보여준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회곡을 주요 텍스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회곡은 연극 상연을 전제로 하지만,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예술장르이기 이전에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여 극적인 이야기로 구성했는지, 텍스트의 시공간과 등장인물의 설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조선인 취락 N지구’라는 공간

「야키니쿠 드래곤」의 공간적 배경은 “관서지방 도시. I공항 옆 조선인 취락⁶⁾ N지구(地區)”로 되어 있고, 이곳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N지구는 전쟁 중에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한 공사장 숙소가 있어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모여 있었다. 전후에 I공항은 미군에 접수되었고 국유지였던 N지기도 당연히 접수될 예정이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철거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후의 혼란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조선인이 고향의 지인이나 친척을 찾아서 일본 각지에서 N지구로 모여 들었다. 이런 이유로 N지구는 일대 조선인 취락이 된 것이다. 조선인 외에도 오키나와(沖縄), 아마미(奄美)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수는 매우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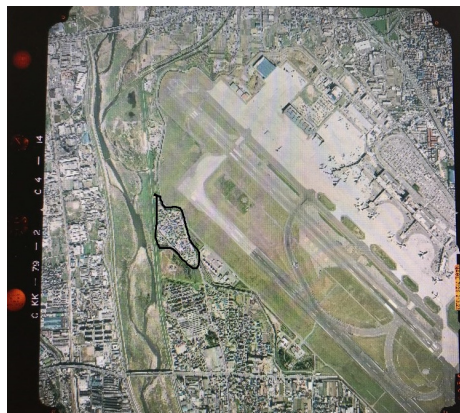
N지구는 원래 하천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대부분이 침수되어 버린다. 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뚝이 뚝뚝 떠다니는 경우도 있다. 국유지를 이유로 전화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N지구 바로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6) 원문에는 ‘집락(集落)’으로 나오는데, ‘취락(聚落)’의 일본어 발음이 ‘집락(集落)’과 같아서 대표 상용한자인 ‘集’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 집단을 가리키는 본래의 단어 ‘취락’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어 번역본에는 ‘부락(部落)’으로 번역한 것도 있다(정의신 작·서현주 역(2010.12) 「야키니쿠 드래곤」 『공연과 이론』, p.224). 그런데 일본어의 ‘부락(部落)’이라는 말에는 ‘취락’과 같이 집단으로 모여 주거생활을 한다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피차별부락’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 거주지를 일컫는 경우에 ‘부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인 집단 거주지에 대하여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멸시의 시선이 많기 때문에 ‘조선인 부락’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방한데, 본고에서는 원문의 표기와 의미를 살려 ‘취락’으로 번역한다.

살아서 익숙해진 N지구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pp.169-170)⁷⁾

위의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공항’은 일본 효고(兵庫) 현의 이타미(伊丹)시에 있는 오사카(大阪) 국제공항으로, 통칭 ‘이타미 공항(伊丹空港)’을 가리킨다. ‘N지구’는 이타미 공항 안에서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살아온 ‘나카무라 지구(中村地区)’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불법점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나카무라 지구’는 언제 어떻게 불법점거 지역이 되었을까? 나카무라 지구의 변천과정을 1930년대부터 추적하여 이 지역의 생활문화를 밝혀낸 가네비시 기요시(金菱清)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격화일로에 있던 1930년대 말에 오사카(大阪) 제2비행장 확장 부지로 결정되었고,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를 위한 합숙소, 이른바 ‘합비(飯場)’가 설치되었다. 이후 패전 직후에 미군에 접수된 다음, 1957년에 일본 당국에 반환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 오사카 국제공항으로 정비되었다. 나카무라 지구가 불법점거 지역이 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가네비시는 밝히고 있다. 즉, 전쟁 중에는 계약에 의한 노무자들의 합법적 주거지였는데, 전후의 혼란 속에서 방치되는 사이에 일본 각지에서 조선인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 들었고, 고도경제성장기에 만국박람회를 앞두고 공항 활주로를 늘리고 국제공항으로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불법점거’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⁸⁾ 앞의 인용에서 ‘국유지’라고 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림1> 1979년 당시 나카무라 지구의 모습⁹⁾

7) 『야키니쿠 드래곤(焼肉ドラゴン)』의 본문 인용은 鄭義信(2013) 앞의 책에 의하고, 본문에는 쪽수만 표기함.

8) 金菱清(2008)『生きられた法の社会学—伊丹空港「不法占拠」はなぜ補償されたのか—』新曜社, pp.76-77

9) 일본국토지리원 웹사이트(<https://osakadeep.info/itami-nakamura/>) 검색일: 2020.09.05

위의 사진은 1979년 당시 나카무라 지구의 모습(다이아몬드 모양 굵은 선)을 찍은 것인데, 오사카 국제공항 내에 활주로 옆으로 약 350세대의 판잣집이 꽂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야키니쿠 드래곤」의 시간적 배경이 1970년 만국박람회가 개최된 전후의 시기이므로, 사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화에서 류키치가 아들 도키오를 손수레에 태우고 달려가는 옆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 있는데, 공항에 접해있는 나카무라 지구의 주거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소수이지만 일본인 하층민도 보인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아베 요시키(阿部良樹)나 북을 치는 사사키 겐지(佐々木健二)는 같은 공간에 있는 재일조선인들과 형편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차별받고 소외되어 조선인 취락과 같은 ‘피차별부락’¹⁰⁾으로 침윤하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빈민층은 고도경제성장기의 그늘을 드러낸다.

주의할 것은 류키치 일가나 주변의 일본인이 빈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냥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주거지 ‘N지구’가 불법점거지역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사회의 최하층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하여 차별과 싸우며 버티고 살아온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류키치가 시의 퇴거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키니쿠 드래곤」에 그려진 재일의 모습은 재일조선인의 대표적인 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카이노(猪飼野)를 그린 김시종(金時鐘)의 시 「이카이노(猪飼野)」(1975)나 원수일(元秀一)의 『이카이노 이야기(猪飼野物語)』(1987)에서 보듯이 흥겹고 토착화된 재일조선인의 원초적인 공동체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보다는 고도경제성장기에 국유재산인 고철조각을 몰래 캐내어 먹고 사는 재일조선인의 사투의 현장을 그린 양석일(梁石日)의 『밤을 걸고(夜を賭けて)』(1994)와 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소위 ‘아파치(アパッチ) 부락’의 전사(戰士)라고 조롱하는 일본사회를 오히려 희화화(戲畫化)하여 권위적 억압과 폭력을 전복시키는 재일조선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야키니쿠 드래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양석일의 ‘아파치 부락’의 사투가 195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야키니쿠 드래곤」은 만국박람회를 사이에 둔 1969~1971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두

10) 일본부락해방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부락’이 피차별부락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로, 에도(江戸) 시대에는 ‘피차별부락’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메이지유신으로 신분제가 해체되고 근대적인 여러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천민 계층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개항장 근처나 장례식장, 도축장,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모여 살면서 피차별부락을 형성했다.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최종길 옮김(2010) 『일본 부락의 역사-차별과 싸워온 천민들의 이야기』 어문학사, pp.186-199

시기 모두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로 포괄할 수 있지만,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시기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다. 텍스트의 시간이 1970년 만국박람회를 지나는 고도경제성장기 정점의 시기로 설정되어, 그 그늘에 가려진 피차별부락으로 침윤하는 재일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린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3. 텍스트의 시간과 등장인물의 극적 구성

「야키니쿠 드래곤」의 시간적 배경은 1969년 봄에서 시작하여 1970년 만국박람회를 지나 1971년 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류키치의 곱창집이 철거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야기의 모델이 된 ‘나카무라 지구’의 실제 이주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나카무라 지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주택 대부분이 판잣집이었기 때문에 전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행정 당국으로서 는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공항용지로 ‘정당’하게 관리하기 좋은 기회였지만, 바로 다음 날이면 폐자재를 모아 새롭게 판잣집이 세워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작품 속에서 퇴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골인 신키치(吳信吉)의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야 애착이 있겠지. 25년…… 26년인가…… 쪽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몇 번이나 토지를 빼앗길 뻔했으니까, 우리들…… 화재가 나면 여기는 곧 전소야…… 그럼 항공국 사람들이 뛰어와서 출입금지 간판을 세우고 철조망을 둘러치지. 하지만 그때마다 숨어들어가 기둥을 세우고 함석 판 지붕을 얹어서…… 인스턴트 판잣집이야…… 필사적으로 지켜 왔어. (중략) 이곳에는 말이야, 우리들의 추억과 역사가 배어 있어……. (p.291)

이 지역은 공해문제나 비행기 소음을 둘러싸고도 몇 차례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국유지였기 때문에 수도관도 매설되어 있지 않고 전화도 개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1970년대에는 이 지역 사람들과 이타미 시 사이에서 몇 차례의 조정논의가 진행되었다. 극본의 후반에 일본인 사사키와 아베가 집회에 참석하고 와서 재개발 문제를 거론하며, “대체할 땅도 되거 비용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 단호히 저지할 거야.”(p.267)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조정논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가 이타미 시에 국유지를 매각했고, 이타미 시가 이를 사들여 집합주택을 건설하고 2002년에 이전(移轉)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이 결정되어, 마침내 2007년에 집단이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극본에서는 1971년에 새로운 거주지로 떠나는 장면으로 처리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시간은 왜 실제의 시간과 다르게 197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일까? 물론 나카무라 지구가 극의 모델이 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문학 텍스트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 또 1970년 전후의 시기가 이 지역 사람들이 벌여온 사투의 현장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이 시기에 맞추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굳이 실제와 다른 시간 설정을 하면서까지 일가가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으로 결말을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극의 결말과 관련하여 1970년으로 시간이 설정된 필연성을 생각해보겠다.

「야키니쿠 드래곤」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은 매우 작위적이다. ‘작위적’이라고 함은 비판하려고 쓴 말이 아니다. 각 등장인물에게는 재일조선인의 대표성을 갖는 역할이 주어져 있어서 1970년 전후로 재일조선인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심인물 류키치(金龍吉)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어 원팔을 잃고, 전후에 고향집을 운영하며 “우리는 여기 일본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일 1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가족에게 들려주는데, 재일조선인이 살아온 통시적 시간을 보여준다. 즉, 전쟁이 끝나고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려 했으나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 귀국을 단념한 일, 제주 4·3사건으로 고향 마을은 사라졌고 한국전쟁이 일어나 조국으로의 귀국이 더욱 어려워진 일, 그리고 전 부인이 죽고 재혼해서 도키오가 태어난 일을 시간 순으로 돌이키며 줄곧 일해 온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전쟁 중에 원팔을 잃고 재일조선인 집단촌에서 오랜 시간을 묵묵히 살아온 삶의 모습은 흡사 현월(玄月)의 『그늘의 집(蔭の棲みか)』(2000)에 나오는 주인공 ‘서방’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이 류키치가 살아온 삶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의 삶을 전형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류키치의 아내 영순(高英順)은 제주 4·3사건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와 재일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류키치와 다르게 해방 후에 일본으로 온 재일 1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장녀 시즈카(金靜花)는 류키치와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971년에 데쓰오(哲男)와 함께 북한으로 ‘귀국’한다. 시즈카의 여동생인 리카(金梨花)는 데쓰오와 결혼했지만 곧 이혼하고, 한국에서 온 오일백(吳日白)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다. 삼녀(三女) 미카(金美花)는 영순이

일본으로 올 때 데리고 온 딸로, 일본인 하세가와(長谷川)와 결혼해서 일본에 거주한다. 즉, 세 딸이 북한과 한국, 일본으로 각기 다른 삶의 거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막내 도키오(金時生)는 류키치와 영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로, 일본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여 실어증에 걸려 자살한다.

류키치 일가뿐만 아니라 곱창집에 드나드는 단골로 나오는 인물도 특색이 있다. 신키치(吳信吉)는 류키치와 마찬가지로 재일 1세인데, 한국에 있는 친척 오일백이 신키치를 의지하여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다. 즉, 신키치는 ‘올드 커머(old comer)’이고, 오일백은 ‘뉴 커머(new comer)’인 셈이다.¹¹⁾ 1965년의 「한일협정」 이후에 협정영주자는 한국의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고, 이들은 재류기간을 갱신하면서 장기체류와 결혼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었는데¹²⁾, 오일백이 바로 이러한 경위로 도입한 인물로 보인다.

또 한 명의 뉴 커머로 등장하는 윤대수(尹大樹)는 시즈카의 약혼자인데, 신키치와 나누는 대화가 흥미롭다. 대수가 신키치를 향해 “같은 한국인 아닙니까?”라고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키치는 “당신들과 우리 ‘재일’은 비슷하지만 달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모를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pp.277-278), 올드 커머와 뉴 커머의 갈등상황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류키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재일조선인의 정형화된 모습을 대변하는 류키치와, 이른바 삼각관계에 있는 시즈카와 리카, 데쓰오의 연애문제, 그리고 미카의 일본 남자와의 불륜은 다소 통속적인 스토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등장인물의 설정을 텍스트의 시공간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매우 상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류키치는 일제강점기에 전쟁에 동원되었다 전후에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재일조선인이 겪어온 역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지만, 국유지 ‘불법점거’에 대한 강제 퇴거조치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버티면서 국가권력에 한껏 항변하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재일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류키치와는 다른 형태로 일본사회에 대하여 비판하며 북한으로 귀국할 것을 결심하는 데쓰오 역시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의 작중 시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69~1971년인데, 데쓰오는 이 시기에 북한 ‘귀국’을 결심하고 시즈카와 함께 북한으로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려진다. 주지하듯이, 재일조

11) 작자 정의신은 올드 커머와 뉴 커머를 구분하기 위해서 ‘吳信吉(ご しんきち)’ ‘吳日白(お いるべく)’과 같이 이름에 일본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을 각각 붙여 놓았다.

12) 한영혜 「‘한국’과 ‘조선’ 경계 짓기와 경계 넘가·국민 정체성의 재구성과 생활의 전략」 한영혜·김인수·정호석(2020) 『경계와 재현-재일한인의 국적, 사회 조사, 문화 표상』 한울아카데미, pp.78-79

선인 북한 ‘귀국사업(The Repatriation Project)’은 1959년 12월 14일에 니가타(新潟)에서 북한의 청진을 향해 첫 배가 출항하여 1967년까지 88,467명의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3년 여 기간 중단되었다가 1971년에 재개되어 1984년까지 약 25년간 총 93,339명이 북한으로 ‘귀국’한 일을 가리킨다.¹³⁾

즉, 데쓰오가 시즈카와 함께 북한 ‘귀국’을 결심하는 것은 ‘귀국사업’이 중단되었다 재개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3년간 중단된 후에 1971년에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는 앞서 귀국한 사람들을 통해 이미 북한 정보가 많이 나온 시점으로,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한 북한의 허상이 드러나 귀국자 수도 격감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쓰오가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귀국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데쓰오가 북한에서의 삶이 힘들 거라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귀국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국 바보가 되지. 우리 ‘재일(在日)’이 하는 일이라곤 빙빙 밀바닥을 기며 뽕뽕이를 돌고 있을 뿐이야……. 이 시궁창 냄새 나는 동네가 너무 싫어서 뛰쳐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규슈 탄광까지…… 하지만 결국 폐광이 되어 쫓겨나고…… 그래서 새로 소개받은 일자리가 바로 여기 비행장 활주로 공사…… 제자리로 되돌아 왔어. 웃기는 일이지, 정말. (p.193)

위의 인용은 리카와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데쓰오가 일본에서의 생활을 불평하고 있는 대사인데, 이에 대하여 신키치가 “다 비슷비슷해. ‘재일’의 역사…… 역사 같은 것은…… 네가 특별한 게 아니야.”라고 대꾸한다.

데쓰오가 언급한 규슈(九州)의 탄광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탄광지대인 지쿠호탄광(筑豊炭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 6천 명 이상이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고, 패전 후에 석탄 산업이 일본의 경제부흥에 공헌하는 가운데 일본의 빈민층과 재일조선인이 몰려든 곳이다. 그런데 석유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250개가 넘는 갱이 1965년에 모두 폐광이 되고, 재일조선인은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했다.¹⁴⁾ 폐광으로 내쫓겨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투입되면서 나카무라 지구로 흘러들어 온 데쓰오의 빈곤한 삶은 고도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재일조선인 빈민층의 고난을 보여준다.

13)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에 대한 논의는 김계자(2019.2) 「북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 1960년 전후의 잡지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참고.

14) ‘지쿠호탄광’이 폐광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재일조선인 이야기를 정의신은 희곡 「제비꽃 미용실(パーマ屋スマイル)」(2012년 작품, 鄭義信(2013)에 수록)에서 극화하였다.

작년 김희로 사건, 기억해? 김희로가 참 멋있는 말 했었지……. 일본의 전쟁, 그 전쟁에 끌려가서 협력하고 상처를 입고, 더욱이 지금은 일본사회 속에서 안정된 직업도 생활보장도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 그런 동포들을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해. (중략) 김희로의 절규가 바로 내 절규야 (p.256)

일본사회의 차별과 천대에 저항하여 1968년에 인질극을 벌인 김희로(金嬉老, 1928~2010)의 절규가 곧 자신의 절규라고 데쓰오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데쓰오는 “일도 전전(轉轉)하고…… 여기저기 옮겨 살고…… 민족운동에도 참가했어. 노동쟁의에도 깊이 관여했고…… 하지만 늘 채워지지 않았어…… 마음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것 같아…….”(p.258) 하고 울분을 토로한다. 고도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하층민으로 내몰려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재일조선인 청년의 답답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데쓰오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울분을 터뜨리며, “나는 ‘북’으로 가겠다.”(p.281)고 북한 귀국을 결심한다. 전술했듯이 이 시기는 ‘귀국사업’의 허상이 이미 드러난 시기여서 신키치가 “북(北)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라면 왜 총련(綏連)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귀국하지 않는 걸까? ‘지상낙원’이라니, 과대광고에도 정도가 있어야지. (중략) 결국 우리들 ‘재일’은…… 북에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야.”(pp.314-315)라며 데쓰오의 북한행을 만류하지만, 데쓰오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야. 6년 전의 한일회담에서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지위협정(한일법적지위협정)이 조금만 더 제대로 됐어도……. 박정희는 일본에서 돈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재일’의 입장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했어……. ‘재일’은 외교교섭을 위한 단지 수단일 뿐야…… 「지위협정」 덕분에 ‘재일’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38선이 그어진 거야……. (p.315)

위의 인용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의 미진한 부분, 특히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데쓰오가 비판하고 있는 대사이다. 「한일협정」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추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징병이나 징용으로 도일하여 참혹한 삶을 이어 온 재일조선인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에게 부여하는 협정영주권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한일협정」에서는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차별 완화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국제사회의 논의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개선된다. 1975년 4월에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고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었는데, 한편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여 일본에도 보트피플이 들어오는 가운데 일본의 난민수용 소극책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일본정부도 「국제인권조약」(1979)과 「난민조약」(1981)을 비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 60만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개선되었다.¹⁵⁾ 따라서 작중의 시간인 1969~1971년에는 재일조선인이 왜 불법점거지에 살게 되었는지, 이들의 거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조차 되지 않던 시점인 것이다. 데쓰오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북한행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한일협정」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데쓰오의 북한행에 대하여 소설 『야키니쿠 드래곤(焼肉ドラゴン)』에서는 도키오의 내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상낙원’, ‘의식주 걱정이 없다’는 등의 대선전도 했으니까 가난한 재일코리안들은 꿈을 품고 ‘북’으로 건너갔을 거야. 설령 그것이 완전 거짓말이라고 해도 달려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먹고 사는 것에 내몰려 있었는지도 몰라. 데쓰오 씨의 경우는 경제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심정적인 이유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p.127)

「한일협정」 이후에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선전이 허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사회의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북한행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재일조선인의 절박한 심경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작품의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역할은 북한 ‘귀국사업’과 「한일협정」 이후에 더욱 고착화된 냉전시대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이 처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극적 구성(劇的構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연출되어 있다.

도키오는 자살하고 살던 집은 철거되어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말은 작위적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식들이 한국과 북한, 일본의 새로운 거처로 제각기 떠난 후에 영순과 단 둘이 남은 류키치가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군…… 기분 좋구나…… 이런 날은 내일을 믿을 수 있지…… 설령 어제가 어떤 날이었든지, 내일은 꼭 좋은 날이 올 거야…….”(p.327)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다음에서 극의 결말이 보여주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

15) 정희선·김인덕·신유원 역(2012) 『재일코리안 사전』선인, p.99

4. 냉전시대에 사산(四散)하는 재일조선인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의 삶은 일본의 패전과 한반도의 분단 사이에서 복잡하고 고된 과정을 지나 왔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며 분단체제가 고착화된 후에는 한반도의 남북갈등과 한일, 북일 관계에 연동되어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개선되지 못한 채 유동적이고 불안한 상태였다. 역사학자 이타가키 류타(板垣龍太)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종결된 후에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각지에서 나타났는데 그것들이 급속도로 약화된 배경에 ‘냉전’이 있다고 지적하며, 1949년에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4가지 조항을 수록한 「대일배상요구조서(對日賠償要求詔書)」는 미국의 극동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무배상 방침으로 전환되었고 남한에서의 ‘친일파’ 처벌도 ‘반공’의 논리가 강화되면서 좌절되었다고 지적했다.¹⁶⁾

이타가키 류타가 지적한 대로 냉전의 논리 하에 식민지배의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일조선인은 전후 일본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빈곤과 차별의 일상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전시 중에 노동력 동원을 위해 거주시켰다 전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법점거지라는 구실을 내세워 퇴거하라고 시 관계자가 류키치를 압박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도키오가 일본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여 등교를 거부하고 실어증에 걸려 있는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나누는 대화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신키치 도키오가 다니는 학교 유명한 사립이죠?

영 순 …….

신키치 가끔밖에 가지 않는다면 돈이…… 아깝군.

영 순 돈 문제가 아니야.

아 베 조선학교에 보내면 어떻습니까? 친구 생기지 않을까요?

영 순 그런 빨갱이(ペリゲエ, 赤) 학교…… 보낼 수 없어.

아 베 건국(중학교) …… 거기 분명 한국 학교죠? 거기는?

신키치 자네, 잘도 알고 있군.

아 베 …….

류키치 우리는 앞으로 꼭 일본에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교육이 제일이야.

데쓰오 아버지의 팔…… 전쟁에서 잃은 거죠? 그래도 일본의 교육 받게 하는 겁니까?

류키치 …… (중략)

16) 이타가키 류타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55~65)」, 오타 오사무·허은 편(2017)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소명, p.54

데쓰오 모순 덩어리아, ‘재일’은…… 온통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속에서 일본을 미워하고, 한국을 동경하고…… 그럼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p.236)

해방 후에 제주도에서 4·3사건을 겪고 일본으로 건너온 영순이 ‘빨갱이’ 운운하며 조총련계의 조선학교를 멀리하는 시선에는 냉전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불행한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다. 나중에 영순이 류키치에게 도키오를 한국학교에 보내자고 제안하지만, 류키치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맞닥뜨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영순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한반도의 남도 북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학교를 고집하는 류키치를 통해 자신의 왼팔을 앗아간 전쟁동원과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구 식민 종주국인 일본에서 불법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순된 안타까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데쓰오의 대사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재일조선인의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데, 실어증에 걸려 결국 자살하고 마는 도키오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중에서도 가장 냉전시대를 사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데쓰오와 시즈카의 북한 ‘귀국’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쓰오가 북한으로 갈 것을 결심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이르기까지 헤어지지 못하고 반복되는 빈곤 문제, 일본사회의 차별, 그리고 「한일협정」의 미진한 결과 속에 재일조선인의 폐쇄(閉塞)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북한행을 택한 것이다. 더욱이 데쓰오가 북한행을 결심한 시기가 ‘지상낙원’을 선전한 북한의 허상이 드러나고 ‘귀국사업’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들까지 뿌리치며 사업이 재개되자마자 북한행을 결행하는 결말은 충격적이다.

195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이 1967년까지 진행되면서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북으로 간 데에는 일본 내에서 북한 귀국을 둘러싼 고양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3년여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 사업이 재개된 1971년에는 이러한 분위기는 사라진 후였다. 그동안 귀국한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전해진 데다 한일회담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북한으로의 귀국 열기가 식은 것이다. 사업이 재개된 이후 1984년까지 32차례의 귀국선이 출항했지만, 귀국자의 총수는 4,728명으로 급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 데쓰오가 북한으로 귀국하려고 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쓰오처럼 재일 2세가 북한으로 귀국하는 것은 1세들의 고국지향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으로 귀국한 당사자에게 직접 귀국 동인(動因)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문학 텍스트는 유효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귀국 열기가 식은 상태에서 사업이 재개된 1970년대 초에 재일 2세가

북한으로 귀국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대표적인 예로 양영희(梁英姬)와 후카자와 우시오(深沢潮)의 문학작품을 들 수 있다. 영화감독 양영희는 실제로 자신의 오빠 셋이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1971년에 사업이 재개되자 둘째(건아)와 셋째 오빠(건민)가 먼저 북으로 갔고, 1972년에 큰 오빠(건오)마저 북한으로 건너갔다. 양영희는 소설 『가족의 나라(兄かぞくのくに)』(2012)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건오 오빠의 귀국은 문자 그대로 급작스러웠다. 아래 두 오빠가 귀국하고 얼마 안 된 새해 초, 조선대학교 1학년이었던 건오 오빠가 갑자기 북한 귀국단으로 지명됐다.

조총련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 60주년 기념일인 1972년 4월 15일에 맞춰, 김병식 제1부위원장의 지령 아래 열심히 북으로 선물을 보냈다. 그 ‘60주년 기념 선물’의 메인인 ‘인간 선물’이었다. 위대한신 주석님께 전도유망한 재일조선인 젊은이들을 헌납하는 것이다. 주석의 탄생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까지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연출과 함께(물론 바다는 배로 건넜지만). 그걸 위한 ‘충성스런 청년축하단의 건설의 선봉대’로 주석님께 선물한다는 프로젝트였다. 그 2백 명 중 한 명으로 건오 오빠가 선발된 것이다.¹⁷⁾

양영희의 가족 이야기는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지만, 귀국사업 재개시점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즉, 사업이 재개된 1970년대는 자발적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총련 조직에서 활동하는 부모의 권유로 자식들이 북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다. 귀국한 세 오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ディア・ピョンヤン)>(2005)과 <굿바이 평양(愛しきソナ)>(2011)에서 양영희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세 아들을 북으로 보낸 것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한과 일본의 조총련 조직이 연결되어 조총련 관계자의 자식이 지명을 받고 북한으로 건너간 예를 보여주고 있다. 후카자와 우시오의 소설 『가나에 아줌마(金江のおばさん)』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아들은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네. 여기서 조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에 건너갔지.”
데쓰오가 마치 원고를 읽듯 감정 없이 담담하게 설명한다.

“내가 조총련에서 오랫동안 일했거든. 그래서 아들이 북한에 간다는 걸 말리지 않았네. 오히려 당시엔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야. 실은 귀환사업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무렵이었지. 그런데 나는 내 입장도 있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어보기로 한 거지.”¹⁸⁾

17) 양영희(2012)『가족의 나라(兄かぞくのくに)』씨네북스, p.44

18) 후카자와 우시오 지음, 김민정 옮김(2019)『가나에 아줌마』아르떼잔, pp.43-44

『가나에 아줌마』는 1972년에 아들을 북한에 보낸 후에 아들 때문에라도 조총련 조직에서 계속 활동해갈 수밖에 없는 재일 1세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이와 같이 사업 재개 이후의 귀국 동인에는 북한과 조총련 조직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조총련 관계자를 부모로 둔 재일 2세가 귀국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재개된 시점에는 귀국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북한과 조총련이 연계된 조직적인 차원에서 귀국사업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키니쿠 드래곤』에서 데쓰오가 귀국하는 시점도 사업이 재개된 1971년이다. 그런데 극중에서 데쓰오가 조총련과 연결되어 있는 접점은 나오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사회의 차별과 빈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재일조선인의 엄혹한 현실과 「한일협정」의 미진한 결과에 대한 비판이 당시 북한 귀국을 독려한 조총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극중에 조총련이 귀국을 독려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데쓰오가 자신의 의지로 북한행을 결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키치가 북한의 허상을 이야기하며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북에서의 힘든 생활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다렸다 바로 귀국하는 데쓰오의 모습은 그만큼 1970년대 재일조선인이 처한 상황이 절박했음을 말해준다. 재일조선인이 한반도의 남과 북, 일본 사이에서 나뉘고 분단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 분단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냉전시대 동북아의 국제정치 속에서 재일조선인도 나뉘고 분단된다. 서경식(徐京植)은 재일조선인이 일본과 조선반도(한반도)로부터 분단되어 종횡으로 찢겨진 존재라고 하면서, “재일조선인이 경험하고 있는 ‘분단의 고통’에는 ‘민족의 분단’과 ‘민족으로부터의 분단’이라는 이중성이 있다”고 하였다.¹⁹⁾ 서경식이 지적한 분단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민족 분단과, 재일조선인이 민족으로부터 분단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재일조선인 당사자들의 분단은 들어 있지 않다.

재일조선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대륙 침략에 동원되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다 해방 후에 귀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선적(朝鮮籍)이든 일본적(日本籍)으로 귀화했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거주해 왔다. 그런데 냉전시대를 지나면서 한일 간에, 그리고 북일 간에 크게 두 번의 계기를 통해 재일조선인은 분단되어 이산된다. 하나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시작되어 7차례의 회담 끝에 1965년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1959년부터 본격화되어 1984년까지 이어진 재일조선인 북한 ‘귀국사업’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야키니쿠 드래곤』에 그려져 재일조선인이 분단되는 결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야키니쿠 드래곤』의 마지막 장면은 냉전시대에 한일 간의 「한일협정」과 북일 간의 ‘귀국사업’으로 인하여 특히 재일조선인의 젊은 층이 분단되는 이산의 현장을 집약

19) 서경식 지음, 임성모·이규수 옮김(2014) 『난민과 국민 사이-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p.189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전쟁에 동원되어 왼팔을 잃고 전후에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최하층의 빈민으로 전락한 재일 1세 류키치를 통해 전후 일본의 식민지배의 책임문제가 재일조선인 분단의 근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정의신의 희곡 「야키니쿠 드래곤」을 고찰대상으로 냉전시대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남북과 일본에 폭넓게 이어지고 있는 재일사회의 분단과 이산(離散)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식민에서 냉전으로 이어진 시대를 지나면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그 속에서 재일조선인 사회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복잡한 이산을 겪어야 했다. 「야키니쿠 드래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러한 사산의 현상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일본사회 최하층의 노동현장을 전전하다 불법 점거지의 빈민으로 전락하고 북한행을 결심하는 데쓰오의 모습은 ‘귀국자’의 모습이라기보다 귀속할 마땅한 곳이 없는 난민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점거’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류키치와, 망명이나 다름없이 북한행을 결심하는 데쓰오는 재일조선인이 처한 빈곤과 차별의 접점에서 중첩된다. ‘인류의 진보와 조화(人類の進歩と調和)’를 공식 테마로 한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화려한 개최와 ‘만박특수’가 가져온 고도경제성장의 활기찬 이면에서 빈민과 난민으로 내몰린 엄혹한 1970년대를 살아온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의신의 희곡 재일 삼부작 「마치 들에 피는 꽃처럼(たえば野に咲く花のように)」(2007), 「야키니쿠 드래곤」(2008), 「제비꽃 미용실」(2012)은 모두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대를 그린 「마치 들에 피는 꽃처럼」, 1960년대 중반에 규슈의 탄광에서 일어난 사고를 그린 「제비꽃 미용실」, 그리고 만박(万博)이 개최된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그린 「야키니쿠 드래곤」에 대하여 일본의 신국립극장에서는 “일본의 그들의 전후사를 그린(日本の影の戦後史を描いた)” “기록하는 연극(記録する演劇)”²⁰⁾으로 소개하였다.²¹⁾ 「야

20) “기록하는 연극”, 즉 ‘기록극’은 1960년대에 독일에서 시작된 연극으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침묵했던 역사적 사실을 희곡화한 데에서 발단이 되어 시대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었다(김천혜(1995.8) 「독일 기록극과 시대 상황과의 관계 고찰」 『독일어문학』3권, p.83).

21) 신국립극장(新国立劇場) 「야키니쿠 드래곤」 연극 정보

(https://www.nntt.jac.go.jp/play/yakinikudragon/?_fsi=RNUw3mso: 검색일 2020.09.25)

키니쿠 드래곤」은 고도경제성장의 활기찬 이면에서 빈민과 난민으로 내몰려 엄혹한 1970년대를 산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본사회의 암부(暗部)를 드러내고, 전후 일본의 무책임과 배타적인 차별 속에서 사산하는 재일조선인의 삶과 저항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鄭義信(2013)『鄭義信戯曲集 たとえば野に咲く花のように／焼肉ドラゴン／パーマ屋スマイル』リトルモア, pp.168-332
- _____(2018)『焼肉ドラゴン』角川文庫, pp.3-186
- 김계자(2019.2)「북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 1960년 전후의 잡지를 중심으로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pp.275-291
- 김천혜(1995.8)「독일 기록극과 시대 상황과의 관계 고찰」『독일어문학』3권, p.83
- 다카쓰키 야스시 저·한정선 역(2020)「인터뷰」정의신·돌담길 조선인 취락에 대한 기억」『13인의 재일한인 이야기』보고사, p.275
- 서경식 지음, 임성모·이규수 옮김(2014)『난민과 국민 사이-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돌베개, p.189
- 양영희(2012)『가족의 나라(兄—カズ—のくに)』씨네북스, p.44
- 우수진(2008.9)「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재일조선인 연극과 야키니쿠 드래곤-혼종적 리얼리티와 낭만적 심미화」『공연과 리뷰』62, pp.111-114
- 이타가키 류타(2017)「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55~65)」오타 오사무·허은 편(2017)『동아시아 냉전의 문화』소명, p.54
- 일본부락해방연구소 지음·최종길 옮김(2010)『일본 부락의 역사-차별과 싸워온 천민들의 이야기』어문학사, pp.186-199
- 정의신 작·서현주 역(2010.12)「야키니쿠 드래곤」『공연과 이론』, p.224
- 정희선·김인덕·신유원 역(2012)『재일코리안 사전』선인, p.133
- 한영혜「‘한국’과 ‘조선’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국민 정체성의 재구성과 생활의 전략-」한영혜·김인수·정호석 (2020)『경계와 재현-재일한인의 국적, 사회 조사, 문화 표상-』한울아카데미, pp.78-79
- 후카자와 우시오 지음, 김민정 옮김(2019)『가나에 아즈마』아르띠잔, pp.43-44
- 金菱清(2008)『生かれた法の社会学—伊丹空港「不法占拠」はなぜ補償されたのか—』新曜社, pp.76-77
- 일본국토지리원 웹사이트(<https://osakadeep.info/itami-nakamura/>, 검색일: 2020.09.05.)
- 신국립극장(新国立劇場)「야키니쿠 드래곤」연극 정보
(https://www.nntt.jac.go.jp/play/yakinikudragon/?_fsi=RNUw3mso: 검색일 2020.09.25)

논문투고일 : 2020년 09월 26일
심사개시일 : 2020년 10월 19일
1차 수정일 : 2020년 11월 03일
2차 수정일 : 2020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17일

 <要旨>

「야키니쿠 드래곤」에 그려진 냉전시대의 재일조선인

김계자

본 논문은 정의신의 희곡 「야키니쿠 드래곤」을 고찰대상으로 냉전시대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남북과 일본에 폭넓게 이어지고 있는 재일사회의 분단과 이산(離散)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식민에서 냉전으로 이어진 시대를 지나면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그 속에서 재일조선인 사회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복잡한 이산을 겪어야 했다. 「야키니쿠 드래곤」은 불법점거지 조선인 취락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냉전시대의 시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특징적 설정과 극적인 구성을 통해 냉전시대에 재일조선인이 사산(四散)하는 현장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일본사회 최하층의 노동현장을 전전하다 불법 점거지의 빈민으로 전락하고 북한행을 결심하는 데쓰오의 모습은 ‘귀국자’의 모습이라기보다 귀속할 마땅한 곳이 없는 난민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점거’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류키치와, 망명이나 다름없이 북한행을 결심하는 데쓰오는 재일조선인이 처한 빈곤과 차별의 접점에서 중첩된다.

「야키니쿠 드래곤」은 고도경제성장의 활기찬 이면에서 빈민과 난민으로 내몰려 엄혹한 1970년대를 산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본사회의 암부를 드러내고, 냉전시대에 무책임과 배타적인 차별 속에서 사산하는 재일조선인의 삶과 저항을 기록한 작품이다.

Zainichi Korean in Cold War represented in the play *Yakiniku Dragon*

Kim, Gae-Ja

This paper considers the Zainichi Korean's living in Cold War represented in the play *Yakiniku Dragon* written by Chong Wishing, and thinks about the problem of division and separation in Zainichi society widely arisen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through the colonial period and Cold War era, which led to more complicated separation for Zainichi Korean. At the last scene of *Yakiniku Dragon*, Ryukichi's family's separation is drawn toward the three countrie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The dramatic setting of the play in time, space, and characters reveals the irresponsibility for the colonization in postwar Japan. Especially, Ryukichi and Tetsuo are worthy of notice. Ryukichi lost his left arm in the war, and was uprooted his livelihood under the excuse of illegal occupation after the war. Tetsuo wandered the works of the lowest class and fell to the poor in the illegally occupied territory, and finally went over to North Korea through 'The Repatriation Project' in 1971. They are located in the overlapping point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of Zainichi Korean.

The play *Yakiniku Dragon* shows the dark side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postwar Japan, and documents the living and resistance of Zainichi Koreans who were separated through the discrimination and irresponsibility in postwar Japan.